

Q1

고교학점제를 조기 도입하는 것인지?

학점제를 조기 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이전에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성취평가제와 미이수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학점제의 조기 도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5년 전면 도입에 앞서 '학점' 용어 사용, 수업량 조정 등 고교학점제의 일부 요소를 미리 도입하는 것은 학교현장의 안정적인 준비를 위한 것으로, 이는 2018년 학점제 방향 설정 단계에서 이미 계획된 사항입니다.

Q2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 받게 되는데,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

수업량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고, 수업량이 줄어듭니다. 고등학교 총 이수 단위가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어들어, 교과 6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6학점이 고르게 감축됩니다. 기존 204단위는 주당 34교시의 수업량에 해당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주당 32교시로 수업량이 줄어들어 선생님들의 수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통과목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해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충지도를 실시하여 책임교육을 강화하게 됩니다.

Q3

학점제는 2025년 도입이라더니
왜 2023학년도부터 수업량을 줄이는 것인지?

2015 교육과정 개정으로 2018학년도부터 이미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고등학교 3년 동안 204단위를 이수해야 하는 현재의 체제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하루를 빼고 매일 7교시 수업을 해야 해서 시간표 편성이 경직적이고, 과중한 수업량으로 인해 교사들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2023년부터 미리 수업량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여 학교 현장이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준비 하고자 합니다.

192학점으로 조정되면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줄어들어 학생들의 진로진학지도나 수업 연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도 시간표에 여유가 생기므로 이를 공강 시간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듣거나, 진로 상담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4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현장 교사들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학점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개별학교 교육과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분석해보니 3년간 평균 60여개의 과목이 편성되는데, 학년별·교과별로 주로 편성되는 과목들은 국가교육과정 상의 보통교과(일반선택 및 진로선택 과목)이며, 전문교과는 3과목(심화수학 I, 심화영어 I, 과학과제연구) 뿐이었습니다.

이는 학점제 도입 이후에도 개별학교 교육과정이 보통교과 중심으로 운영되며, 소수의 전문교과 및 희소과목 등이 개설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보통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되므로 교육과정 편성 이전에 학생 대상 선택과목 안내 및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교사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으며, 학교 안에서 개설이 불가능한 과목에 대해서는 공동 교육과정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Q5

2023년부터 공통과목 국·영·수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하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학점제 도입으로 교원의 업무가 과중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공강 지도 등 추가되는 업무에 대해 수업 시수 인정 등을 검토하고, 선택형 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에 따라 나타나는 강사채용 업무 등을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6개 교원단체와 함께 학점제 관련 교원 업무 경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점제 전담교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중등 교원 정원을 배정('22년 452명) 하였으며, 2022년 교원수급 계획 수립 시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원 수요를 우선 고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통교부금에 고교학점제 운영경비를 반영하는 등 행·재정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 과중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앞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Q6

단계적 이행 기간 동안 학교 내신 평가에 변화가 있는지?

내신평가는 변화가 없습니다. 모든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는 등 내신 평가 제도가 바뀌는 시점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5년 고1부터입니다. 학점제 단계적 이행 기간에는 진로선택과목에만 성취평가제(석차 9등급 미산출)가 적용되는 등 현행 방식이 유지됩니다.

Q7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대학 진학에 불리한 점은 없는지?

2023-24년 학점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더라도, 교과목 구조 및 내용 등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입 역시 현행 체제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내신 평가 방식, 대입 정시·수시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학점제 단계적 이행 기간에는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맞춰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대입제도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 제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충분한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겠습니다.